조선일보 - 1937. 07. 13/ 5면/ 6단

現代 의思惟와 人間 理念

人間 解釋의 現實態度(5)

金基錫

人間은 有限的 存在의 意味를 가진다. 人間은 그 基底에 物質의 原理 生物의 原理 가튼 것을 가진다. 그러나 人間은 어데까지던지 人間으로서의 原理를 가저야 한다. 이『物質的인 것』『生物的인 것』이 자기를『人間的인 것』에로 止揚시키는데 잇서서 한 개 새로운 秩序로서의 人間의 實存이 構成된다.

그런데 우리들은 人間의 生物性을 主張하야 生物로서의 人間의 起源 밋 行程을 말하는 한 개의 見解가 잇슴을 본다. 進化論的 生物主義 또는 生物學的 進化論이 곧 그것이다. 進化論은 그 자신 한 개의『遷變의論理』가 된다. 모두를 久遠한 形相에서가 아니라. 流動하는 質料에 잇서서 보려는『運動의論理』의 意味를 가진다. 이『遷變의論理』로서의 進化論은 벌서 아득한 옛날『타레스』的 思惟『헤라클레이토스』的 思惟에 잇서서 그 近代的 構成에의 姿勢를 보엿다.

進化論은 中世의 神學的 諦念에 대한 近世的 理性의 抗辯으로서 自己를 表現 또 主張한다. 進化論이 어떠케 심하게 經驗論, 實證實을 通해서 生物의 變遷 進化가 開展된다고 한다. 生物은 본대 그 出現當初에 잇어서 부터 自己를 에워싼 環境 또는 自己와 마주서는 다른 生物에 대하야 그 자신의 生存을 위한 鬪爭에 드러선다. 이리하야 그『날카로운 깃발』그『사나운 발톱』을 가지고 環境 밋 다른 個體에 대여들때 그는 비로소 自己를 殘敗, 死滅의 속에서 救援한다고 한다.

우리들은 이 進化論의 根本主張과 아울러 現代 英米哲學의 한 流派인 進化的 自然主義는 物質-生命-意識의 連續을 主張한다. 進化的 自然主義에 依하면 自然의 自體로서의 時間과 空間이 잇고, 거기에서 먼저 物質이 構成되고 이 物質에서 植物, 또 이 植物에서 動物, 또 이 動物에서 人類가 躍出된다고 한다. 이러케 하야 새로 躍出 되는 實存은 自然의 進化過程에 잇서서 한 개의 段階 또는 基準의 意味를 가지고 이제 이 段階 또 는基準은 어데까

지던지 그 자신의 原理와 範疇를 지키면서 하나가 다른 하나에 連續 된다고 한다.

進化論은 이 進化的 自然主義에 잇서서 그자 신의 世界觀적 表現에 만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進化論은 어데까지던지 자기를 生物의 世界에 대한 因果論的 解釋으로 自覺해야 한다. 이른바 生存競爭, 自然淘汰는 분명히 生物의 世界에 잇서서의 한 개 客觀的 事實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生物의 世界, 自然의 世界 속에는 이 한 개의 사나운 事實과 함께 다른 한 개의 눈물겨운 事實이 뚜렷하게 展開 되고 잇는 것이 아닐까. 이 다른 한 개의 새로운 事實을 生物進化의 眞實한 動因으로 생각하야 그 具體的 實證을 머리가 아플 정도로 敍述한 어떤 不過한 學究가 잇섯슴을 우리들은 記憶한다.

進化論은 生物의 世界에 대한 因果論的 解釋을 企圖한다. 여기에서 進化論의 主觀的 限界가 온다. 生物의 世界는 進化論的 見解를 超越하는 無限한 事實을 보인다. 여기에서 進化論의 對象的 限界가 벌어진다.